

TV 4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6 40 코모닝A	00 KBS 뉴스광장	00 2TV아침	00 MBC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1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폭풍의 여자>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제 끝판타임	25 가정의 달 기획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아침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황홀한 이웃>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그라도 푸르른 날에>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20 시사 인사이드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50 지구촌 뉴스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1 3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네트워킹 특선 춘춘춘 55 바쁜날 고운말	10 월화드라마 <후아유-학교2015>(재)	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10 KBC 생활뉴스 30 세계문화탐방 지구촌 축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10 MBC 청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12뉴스 45 닥터 365 55 KBC 열린토론회(재)
1 50 김부장의 뉴스통	00 대조영(재) 55 어린이날 특선영화 <오스>	20 인간극장 스페셜	00 푸라기 식사교실 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55 세상발견 유레카 스페셜
2		00 KBS 뉴스타임 10 인간극장 스페셜(재) 50 엄마의 탄생(재)	30 어린이 직업탐험대 드림키즈 스페셜	
3 00 직언직설		45 후도스	00 MBC 뉴스 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서어 40 문화 사색	00 SBS 뉴스 10 잘 먹고 잘 사는 법 식사하셨어요? 스페셜
4 20 쾌도난마	00 오늘의 경제 10 역사저널 그날(재)	10 자동공부책상 위키 40 TV유치원 공다공	2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5 3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10 타닝매거진 40 동물의 세계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 24 30 2TV 저녁 생생 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날씨와 생활 05 닥터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닥터 지 바고	00 KBS 뉴스7 30 인순이의 토크드라마 <그대가 꽃>	50 일일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5 일일연속극 <불굴의 차여사> 55 MBC 뉴스데스크	10 시사저널 때때때때 20 일일드라마 <달려라 장미>
8 20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25 일일연속극 <당신만이 내 사랑>	30 반려동물극장 <단팍> 55 위기탈출 넘버원	55 MBC 일일특별기획 <압구정 백야>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가요무대	00 월화 드라마 <후아유-학교 2015>	00 월화 특별기획 <왕정>	00 월화드라마 <몽유모드 들었소>
11 00 이제 만나러 갑니다	00 KBS 뉴스라인 40 TV, 책을 보다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5 가정의 달 특집 유먼다큐 사랑 10주년 <단 하나의 약속>	15 힐링캠프 키프리 아니한가
12 30 모쿠드라마(싸인)(재)	20 해외결격드라마(삼총사)	30 스포츠 하이라이트 55 토크쇼 현장보고(재)	20 MBC 뉴스24 40 메이저리그 디아이리 5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나이트 라인



“Korea, You are cool ... 다시 만나요”

‘비틀스’ 폴 매카트니 첫 내한공연 ... 잠실에 올린 ‘렛잇비’

“렛잇비 렛잇비 위스퍼 위즈 오브 위즈덤 렛잇비”
지난 2일 밤 서울 잠실 한복판에선 라디오에서나 들었던 목소리로 비틀스의 노래 ‘렛잇비’(Let it be)가 흘러나왔다. 전설적인 밴드 비틀스의 멤버 폴 매카트니(73·사진)의 처음이자 여저먼 마지막 내한공연이었다.
익숙한 ‘렛잇비’ 음이 흘러나오자 관객들은 모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에 휩싸여 무언가에 홀린 듯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렛잇비’의 전주가 흘러나온 것은 공연이 2시간 정도 지나 흥이 오를 만큼 울랐을 때였다.
이날 오후 8시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폴 매카트니는 공연 내내 비틀스의 전설이 현재 진행형임을 확인시켰다.
폴 매카트니는 무대 양옆에 설치된 대형 디스플레이에 자신의 과거 사진과 히트곡이 주마등처럼 흐르다가 갑자기 화면이 정지되며 기타 이미지가 비치는 순간 모습을 드러냈다. 그가 선택한 첫 곡 비틀스 4집 앨범에 수록된 ‘에잇 데이즈 어 위크’(Eight days a week)였다. 최근 투어에서 ‘매지컬 미스터리 투어’(Magical mystery tour)와 함께 오프닝곡으로 즐겨 선택하는 곡이다. 그는 다음 곡 ‘세이브 어스’(Save us)까지 마친 뒤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며 첫 인사를 건넸다.
평소 해외 공연에서 그 나라 말로 인사하는 예의를 잊지 않는 그는 모니터에 걸논질하면서 “한국 와서 좋아요. 드디어!”라고 말하며 자신도 한국 팬과의 만남을 학수고대했음을 고백했다.
“오늘 신나게 즐겨봅시다. 한번 놀아볼까요?”라며 공연이 예상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그는 비틀스 시절 히트곡부터 그는 진절하게 매 곡을 부르기로 약속을 지켜진 사연도 들려줬다. 또 존 레논을 위한 추모곡 ‘히어 투데이’(Here Today)도 선보였다.
폴 매카트니는 예상치 못한 장면에 감동한 듯 피아노에 몸을 기대어 한참 관객석을 쳐다봤다.
그러면서 “투 굿, 투 그레이트”(Too Good, Too Great)라고 독백하듯 말했다. 그가 “함께해요”라고 권한 ‘오블라디 오블라다’(Obladi Oblada)에선 3층 관객까지 모두 일어나 손뼉치고 따라부르며 마치 록스타의 공연장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점차 굿해지는 빛줄기에 굴하지 않고 이보다 뜨거울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관객들로 급기야 그는 관객들을 가리켜 “코리아, 유 아 쿨”(Korea, You are cool)이라고 외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 위 아티스트와 무대 아래 관객 사이에서 마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듯했다.
폴 매카트니와 관객 간 교감은 ‘렛잇비’ 무대에서 절정을 맞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가 ‘렛잇비’의 전주를 연주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한 듯 휴대전화의 라이트를 켜 무대를 향해 비추었다. 마지막곡 ‘헤이 주드’(Hey Jude)에선 오히려 한국 팬들의 반응에 폴 매카트니가 더 감격 한듯했다.
관객들은 곡 시작부터 목청껏 따라부르며 ‘폐창’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유명한 후렴구 ‘나나나 나나나 나~’가 나오자 이번엔 후렴구가 적힌 종이를 머리 위로 들어 흔들었다.
이 광경에 매카트니는 몇 차례나 손으로 마리를 감쌌다. 그는 관객석 곳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으로 입맞춤을 날렸다.
‘에스터데이’(Yesterday)를 포함해 비틀스 곡 위주로 채운 앙코르 무대는 마치 또 다른 공연을 보는 듯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대형 태극기를 들고 나와 흔들는 퍼포먼스도 빼먹지 않았다.
그는 두차례의 앙코르 무대에서 ‘헬터 스킨터’(Helter Skelter) 등 2곡을 부르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다시 만나요”라는 약속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서였다.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투어를 끝마친 그는 3일 출국한다.

기대어 한참 관객석을 쳐다봤다.
그러면서 “투 굿, 투 그레이트”(Too Good, Too Great)라고 독백하듯 말했다. 그가 “함께해요”라고 권한 ‘오블라디 오블라다’(Obladi Oblada)에선 3층 관객까지 모두 일어나 손뼉치고 따라부르며 마치 록스타의 공연장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점차 굿해지는 빛줄기에 굴하지 않고 이보다 뜨거울 수 없는 반응을 보이는 관객들로 급기야 그는 관객들을 가리켜 “코리아, 유 아 쿨”(Korea, You are cool)이라고 외쳤다.
시간이 지날수록 무대 위 아티스트와 무대 아래 관객 사이에서 마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는 듯했다.
폴 매카트니와 관객 간 교감은 ‘렛잇비’ 무대에서 절정을 맞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가 ‘렛잇비’의 전주를 연주하자 관객들은 일제히 숨을 멈췄다. 그리고는 마치 약속한 듯 휴대전화의 라이트를 켜 무대를 향해 비추었다. 마지막곡 ‘헤이 주드’(Hey Jude)에선 오히려 한국 팬들의 반응에 폴 매카트니가 더 감격 한듯했다.
관객들은 곡 시작부터 목청껏 따라부르며 ‘폐창’의 진수를 선보였으며 유명한 후렴구 ‘나나나 나나나 나~’가 나오자 이번엔 후렴구가 적힌 종이를 머리 위로 들어 흔들었다.
이 광경에 매카트니는 몇 차례나 손으로 마리를 감쌌다. 그는 관객석 곳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손으로 입맞춤을 날렸다.
‘에스터데이’(Yesterday)를 포함해 비틀스 곡 위주로 채운 앙코르 무대는 마치 또 다른 공연을 보는 듯했다.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듯 대형 태극기를 들고 나와 흔들는 퍼포먼스도 빼먹지 않았다.
그는 두차례의 앙코르 무대에서 ‘헬터 스킨터’(Helter Skelter) 등 2곡을 부르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다시 만나요”라는 약속의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서였다.
서울 공연을 마지막으로 아시아지역 투어를 끝마친 그는 3일 출국한다.

EBS 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연 스페이스 정글	14:30 허풍선이 과학쇼	19:0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05:30 건강한 아침	09:40 토코스 부부 - 고수다	14:45 미앤미로봇	19:30 EBS뉴스
05:40 나의 성공비결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반짝반짝 발명 클럽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06:10 EBS 인문학 특강(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내 친구 아서	20:40 다류 오늘
07:00 우당탕탕 아이쿠(재)	11:10 문화유산 코리아	15:30 시계마을 타기톡!	20:50 세계테마기행
07:15 곤(재)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미술 탐험대	(원시의 섬 배너두루 대탐험)
07:30 출동! 슈퍼왕(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당명 유치원(재)	21:30 한국기행
07:45 뽀롱뽀롱 뽀로로(재)	12:10 EBS 스페이스 공감(재)	16:30 놀이터 구조대, 보잉	<푸른 빛 부안>
08:00 덩동명 유치원	13:05 지식채널e	16:45 골디와 친구들	21:50 EBS 다크프라임
08:20 두다다콩(재)	13:10 글로벌 프로젝트 나눔	17:0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한국의 강>
08:3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13:40 즐거운 수학 EBSMATH	17:1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	22:45 달라애틀
08:50 골디와 친구들	13:50 꼬마 철학자 유고	17:30 뽀롱뽀롱 뽀로로	23:35 세계 견문록 아틀라스
09:05 바오밥섬의 파오파오(재)	14:00 몬스터 수학나라	17:45 꼬마버스 타요	<아시아의 화귀 풍습>
09:20 놀이터 구조대, 보잉(재)	14:15 피터 래빗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24:05 EBS 인문학 특강

EBS플러스1

00:00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	12:15 올림포스 <국어-알파개념>(재)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6:20 "	<국어 5-1>
00:50 " 고교 Basic Grammar-junior	13:05 " 고교 Basic Grammar-junior	07:30 물류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50 "	<국어 6-1>
01:40 " <문학-알파개념>	14:00 2016 수능특강 <국어 B형>	08:30 약학-의학-치학 입문자격시험	17:20 초등수학 개념잡기	
02:30 " <미적분1>	14:50 올림포스 <문학-알파개념>(재)	09:00 즐거운 수학 EBS MATH	17:50 다류 오늘	
03:20 " <수학 1>	15:40 " <미적분2>(재)	09:10 TV 중학 <국어1①>	18:00 TV 중학 <국어5⑥>	
04:10 " <미적분1>	16:30 " <수학 1>(재)	09:50 " <수학상1>	18:40 " <수학 3(상)>	
05:00 뉴탐스런 <물리>	17:20 " <미적분1>(재)	10:30 " <역사 1>	19:20 필독 중학 세계사	
06:00 " <생명과학>	18:10 뉴탐스런 <물리 1>(재)	11:10 " <국어3④>	20:00 EBS 기획특강	
06:50 " <동아시아사>	19:10 " <생명과학 1>(재)	11:50 " <수학 2(상)>	20:50 EBS 기획시리즈	
07:40 " <윤리와 사상>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12:30 실천취업가이드	21:40 EBS UCC 공모 나쁘디	
08:30 2016 수능개념 <유해정의 국어>	20:50 인터넷 수능	13:10 등업신공 <수학1(상)>	22:00 등업신공 <과학2(상)>	
09:20 " <심주석의 수학>	<화법과독서&독서와 문법A형>	13:50 " <과학1(상)>	22:40 " <수학 3(상)>	
10:10 2016 수능특강 <영어>	21:50 " <문학A형>(재)	14:30 " <수학2(상)>	23:20 필독 중학 <사회1>	
11:00 " <수학>	22:30 최태상의 교과서에 나오는 불교문화	15:20 만점왕 <국어 3-1>	24:00 항공기 조종학 <수학1>	
11:50 배움플러스	23:10 인터넷수능 <영어특해연습-종합>	15:50 " <국어 4-1>	24:30 백점공략 <과학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4일(음 3월 16일 庚辰)

48년생 깜짝 놀랄 정도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니라. 60년생 영원한 비밀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법이다. 72년생 경험을 살리다면 무난하게 타개할 수 있다. 84년생 순간적인 착각에서 기인한 변화의 시도가 문제다. 행운의 숫자 : 82, 72	42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검토 해야만 빈틈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54년생 차분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실행하자. 66년생 능수능란한 임기응변이 절실할 때이다. 78년생 다시 한 번 고려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64, 06
49년생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해져 나갈 수 있다. 61년생 외부로 드러나지 않도록 기술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다. 73년생 주체성을 가지고 일한다면 하등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85년생 노파심은 버려라. 행운의 숫자 : 18, 60	43년생 활력이 되어 주기에 충분하다. 55년생 조금씩 승용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되어 준다. 67년생 요령 없는 대응은 보낼 것 없는 결과를 낳고야 말 것이다. 79년생 이미 터져진 주사어나니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 행운의 숫자 : 70, 75
38년생 훗날을 도모함이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니라. 50년생 자신감을 가져라. 62년생 사소한 것에 얽매었다면 큰일을 놓친다. 74년생 선택의 폭이 커진다. 86년생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급변 하리라. 행운의 숫자 : 27, 02	44년생 계획한 바가 있다면 추진할 수 있는 찬스이다. 56년생 과도하면 문제가 된다. 68년생 연쇄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일취월장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80년생 혹독한 겨울 뒤에 화사한 봄날이 찾아드는 격이다. 행운의 숫자 : 47, 23
39년생 관리만 잘 한다면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51년생 임시 봉합의 형태에서는 아니 된다. 63년생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75년생 주체적으로 대응 하자. 87년생 승세는 명약화하니 그대로 유지 하자. 행운의 숫자 : 32, 15	45년생 상호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57년생 제안 여건이 결핍되어 제3의 현상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극히 이례적이라 할만하다. 81년생 폐단을 제거하고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24, 80
40년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52년생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초심을 잃지 않아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76년생 기본적인 이치에 따르는 것이 순탄하다. 행운의 숫자 : 40, 45	46년생 흥량의 기운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58년생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70년생 굳이 내색할 필요까지는 없다. 82년생 비판적 지지를 하게 되는 판국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67, 10
41년생 안개 속에서 꽃구경하는 식이니라. 53년생 활동 영역이 넓어지거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65년생 듣지도 보지도 못 했던 일이 벌어질 수다. 77년생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 되리라. 행운의 숫자 : 57, 13	47년생 미흡한 점을 보완하는 것이 맞다. 59년생 두루 살펴보고 관심을 갖는 것이 옹이하리라. 71년생 쉽게 정면한다면 자신을 염미하게 하는 결과를 낳는다. 83년생 방법과 기교에 따라서 전연 달라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86, 38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연령!” ☎010-9790-8237



이번주 연예계는 그룹 빅뱅(사진 왼쪽)이 컴백과 동시에 음원 차트를 휩쓸며 주목받는 가운데 코미디 트리오 용달샘(사진 오른쪽)이 설화를 겪으며 추락했다. 특히 용달샘 멤버인 개그맨 장동민의 경우 여성 비하 발언에 이어 삼풍백화점 사고 생존자 모욕 발언으로 소송까지 휘말리면서 곤욕을 치렀다.

돌아온 빅뱅
존재감 Big Bang!

‘루저’·‘배배’ 국내의 음원차트 석권
3년 만에 컴백해 음원차트 정상 휩쓴 그룹 빅뱅 이달부터 4개월간 매일 1일 프로젝트 싱글 음반을 내겠다고 밝힌 빅뱅이 지난 1일 0시를 기해 ‘루저’(Loser)와 ‘배배’(Bae Bae) 두 곡을 공개했다. 이들이 3년 만에 발표한 이 곡은 공개 직후 멜론,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등 국내 10개 음원차트에서 1,2위를 나란히 차지, 빅뱅의 저력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두 곡은 국내뿐 아니라 아이튠즈 싱글차트에서도 상위권에 올라 해외에서의 빅뱅 인기를 짐작케 했다.
이번에 공개된 곡 중 ‘루저’는 홍콩, 인도네시아, 마카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대만,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배배’의 경우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2위를 기록했다.
중화권에서도 관심이 집중됐다. ‘루저’와 ‘배배’는 중국 최대 음원사이트인 QQ뮤직의 K팝 부문에서 각각 1, 2위에 올랐으며 음원 다운로드 수만 11만회를 기록했다. 빅뱅은 8월까지 매일 1일까지 순차적으로 프로젝트 싱글을 발표할 예정이다. 빅뱅은 데뷔 시절에도 이런 식으로 매일 싱글을 발매한 적이 있으며 9년 만에 다시 한번 같은 방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설화 끊이지 않는 코미디 트리오 ‘용달샘’ 개그맨 장동민의 설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 ‘용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한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장동민이 이번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설화를 겪었다.
장동민은 ‘용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장사지”라고 말했다. 이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 A씨는 장동민을 최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동민은 이 일에 대해 사과했으며 장동민을 포함 유세윤, 유상무 등 코미디 트리오 ‘용달샘’ 3명은 지난날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사과했다.
장동민은 지난날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자 MBC TV ‘무한도전’에서 새 멤버를 뽑는 ‘식스맨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유세윤과 유상무 또한 ‘용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문제 발언을 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용달샘’의 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있다. /연향뉴스

장동민 ‘몰매’
삼풍백화점 생존자 모욕

‘용달샘’ 공식 사과 ... 방송 하차 여론
설화 끊이지 않는 코미디 트리오 ‘용달샘’ 개그맨 장동민의 설화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팟캐스트 방송 ‘용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한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된 장동민이 이번에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를 모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또 설화를 겪었다.
장동민은 ‘용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오줌을 먹는 동호회가 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21일 만에 구출된 여자도 오줌 먹고 살았다. 그 여자가 동호회 장사지”라고 말했다. 이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생존자 A씨는 장동민을 최근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장동민은 이 일에 대해 사과했으며 장동민을 포함 유세윤, 유상무 등 코미디 트리오 ‘용달샘’ 3명은 지난날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 사과했다.
장동민은 지난날 여성 비하 발언이 문제가 되자 MBC TV ‘무한도전’에서 새 멤버를 뽑는 ‘식스맨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유세윤과 유상무 또한 ‘용달샘과 꿈꾸는 라디오’에서 문제 발언을 했다는 지적들이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용달샘’의 방송 하차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고 있다. /연향뉴스